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1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 참관기(2)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국제협력센터장

강나경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저자 각주〉

본 참관기는 2022년 『젠더리뷰』 봄호에 실린 2021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 참관기(1)에 이은 후속편이다. 참관기(1)과 (2)를 통해 저자는 2021년 개최된 세대평등포럼의 개최식, 포럼 기간에 다루어진 7개의 주제 중 제1 주제인 “양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가속화 계획” 내의 6개 행동연합 세션,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약 세션, 그리고 폐회식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4개의 행동연합 세션과 폐회식의 내용을 주요 연사의 발언 요지와 함께 정리하였다.

〈표 1〉 전체 목차와 이번호에서 다루어질 부분

1. 들어가며 2. 개최식 3. 제1주제 “양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가속화 계획(Global Accelera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가.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행동연합 출범 세션 나. 경제 정의 및 권리(Economic justice and rights) 행동연합 출범 세션 다. 성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 행동연합(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Gender Equality Action Coalition) 출범 세션	2022년 『젠더리뷰』 봄호에서 다루어진 부분
라. 자기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마. 페미니스트 운동과 리더십 바.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연합 세션(Feminist Action for Climate Justice) 사. 여성, 평화, 안보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정(Compact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Humanitarian Action) 4. 폐회식	이번 호에서 다루어질 부분

라. (2022년 봄호에서 연결) 자기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¹⁾

이 세션에서는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5년간 여아와 여성들이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도출 수 있는 계획과 약속을 발표하였다. 세션은 헬렌 클락(Helen Clark) 전 뉴질랜드 총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아사 레그너(Asa Regner) 유엔여성기구(UN Women) 부총재는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유엔 관련 기구들의 전반적인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번 계획이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와 다른 점은 첫째, 여성단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만이 아닌 일반 기업, 재단, 기업들도 성·재생산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과 1994년 카이로에서 열렸던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정신에 따라 여아와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각국의 중요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레그너 부총재는 또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촉진을 통해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4가지 목표로 포괄적인 성교육 증대, 피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자신의 신체, 섹슈얼리티 및 재생산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관련 단체들의 참여 및 지원 증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4개의 장벽으로는 첫째, 법적 장벽, 둘째 관습적 그리고 문화적 편견에 따른 장벽, 셋째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경제적 장벽,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여성의 신체를 남성이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성 불평등 및 가부장제의 장벽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여아와 여성들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어렵게 만든 점을 지적하며, 학교 및 직장이 폐쇄되어 여성들은 갈 곳을 잃고 빈곤으로 인해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점도 언급하였다.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FPA) 총재는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위한 유엔인구기금의 5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글로벌 파트너들의 포괄적인 성교육 지원 (특히 소녀들을 위한), 둘째, 유엔인구기금 지역 사무소와 파트너십을 통한 피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셋째, 6천 6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생산권 문해력 향상, 넷째,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페미니스트 및 여성단체에 재정

1) Action Coali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Bodily Autonomy
<https://www.youtube.com/watch?v=YjVVYgDfGos> (접속일 2022. 9. 15.)

적 지원, 다섯째,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여성할례를 예방하기 위해 2천 5백만 명의 소녀와 여성들 지원을 포함한다.

본 세션은 또한 정부, 재단, NGO에 소속된 행동연합의 리더들의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졌다. 덴마크의 플레밍 뮐러 모르텐센(Flemming Møller Mortensen) 개발협력부 장관은 피임 서비스 및 포괄적인 성교육 보장을 위해 1천 6백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며 사회적 변화에 맞춰 덴마크 법에 성관계에서의 “동의”를 교육과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임을 밝혔다. 벨기에의 메리암 키터(Meryame Kitir) 개발협력부 장관은 2021~2024년 동안 유엔연구기금에 3천 600만 유로, 유니세프에 6천만 유로, UN Women에 1천 600만 유로를 현대적인 피임 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유로를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다. 노르웨이의 다잉게 울스타인(Dag-Inge Ulstein) 개발협력부 장관 또한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확립된 규범 및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 권리를 위해 104억 노르웨이 크로네를 지원할 것임을 공표했다. 미국의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 보건인적서비스 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은 미국 내 흑인과 원주민 여성의 가족계획을 위해 30억 달러를 사용할 것을 밝혔다. 스웨덴의 카린 잠티(Carin Jamtin) 국제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분야인 포괄적인 낙태서비스 제공에 대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특히 안전한 낙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캐나다, 부르키나파소, 프랑스, 아르헨티나 정부 대표가 참가하여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강화에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동 세션은 관련 청년들과 시민 단체 리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유니스 가르시아(Eunice Garcia) 성·재생산 권리를 위한 청소년 연합(Youth Coalition fo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회장은, 젊은 트랜스 젠더 및 LGBTQ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및 교육을 제공하고,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타파할 수 있는 옹호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독일의 이다 틴(Ida Tin) 월경추적 앱(app) 스타트업 기업인 CLUE의 최고경영자는, 앱(app) 상에서의 성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2021년에 1천 200만 사용자를 달성하며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스탠포드대학에 전달되어 여성의 월경건강 패턴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의 공동회장인 멜린다 게이츠(Melinda Gates)는 16억 달러를 가족계획 프로젝트에 지원할 것을 언급하며 새롭고 향상된 피임 기술을 통하여 개인의 선택을 확장하고, 혁신적인 전략에 투자하여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신이 가진 선택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림 1] 세션의 사회를 맡은 헬렌 클라트 전 뉴질랜드 총리와 발표를 한 멜린다 게이츠

마. 페미니스트 운동과 리더십²⁾

이 세션은 페미니스트 운동과 리더십 행동연합 내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여성과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창립 멤버인 빅토리아 벅슨(Victoria Budson)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션의 도입부에서 발언한 아사 레그너 유엔여성기구 부총재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성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은 물론,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여성 인권이 위협받는 등 여성 운동가들의 활동 공간 역시 제한을 받고 있고, 여성이 전 세계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25%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의사결정과정에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 페미니스트들의 활동과 여성운동이 지속가능하도록 적절한 자원 제공할 것, 둘째, 이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것, 마지막으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고려한 성평등, 정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지탄잘리 미스라(Geetanjali Misra) CREA(Creating Resources for Empowerment in Action) 대표는 페미니스트 운동과 리더십 행동연합이 최종적으로

2) Action Coalition on Feminist Movements and Leadership

<https://www.youtube.com/watch?v=ERaxuj5Qti0&list=PLY61A1S2VLKaBox8rMBxRMSZeDCyGxQh&index=6> (접속일 2022. 9. 15.)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이 합의는 첫째, 페미니스트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원을 제공할 것, 둘째, 글로벌 차원의 연대를 주도하며 경제적 자원 및 정치적 약속을 확대할 것, 셋째, 교차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이를 조직 차원의 노력에 통합시킬 것, 넷째, 여성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것, 다섯째, 시민 공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 페미니스트 운동과 리더십 행동연합의 리더들도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의 카트리나 굴드(Karina Gould) 국제개발부 장관은 팬데믹으로 인해 성평등 성과가 후퇴되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가 평등 기금(the Equality Fund) 등의 경로를 통해 전세계 페미니스트 운동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버기타 타즈라(Birgitta Tazelaar) 심의관은 코로나19로 심화된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네덜란드가 글로벌 SDG5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할당한 예산(5억 유로) 전체를 전 세계 페미니스트 운동과 리더십을 위해 사용할 것과, 국내적으로는 민간 기업 여성 이사 및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미셸 바칠렛(Michielle Bachlet) 대표는 2026년까지 모든 여성 활동가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자선단체를 대표하여 구찌(Gucci)와 오픈 소사이어티(Open Society)는 행동연합의 활동을 위해 향후 5년간 각각 5천만 달러와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동 세션에서는 또한 세대평등포럼 청년 대표(Youth Taskforce)들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케냐의 도린(Doreen)은 아프리카의 HIV/AIDS 확산 방지를, 터키의 일라이다(Ilayda)는 생리에 대한 편견 제거를, 호주의 자라(Zahra)는 전세계 모든 여성의 안전 확보 등 각각의 활동 영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네덜란드의 청년대표는 성평등 달성이 동시대에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세대 간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바. 기후정의의 위한 행동연합 세션 (Feminist Action for Climate Justice)³⁾

기후정의 세션은 정부, 시민사회, 청년 리더, 민간 부문 및 자선단체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성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페미니스트

3) Action Coalition on Feminist Action for Climate Justice <https://www.youtube.com/watch?v=49KpG6lytgg&t=5985s> (접속일 2022. 9. 15.)

행동강령을 선언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사회자로 나선 메리 로빈슨(Marry Robinson)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 특히 취약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해야 했던 인구 중 80%가 여성이라는 최근 유엔보고서의 결과는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의 모든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을 촉구하였다.

동 세션에서는 총 4가지의 행동분야에 대해 다루었다. 첫 번째 행동분야는 성인지적 기후변화 자금을 증대시키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에서 향후 5년간 기후 정의를 위한 실천전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를로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2년까지 여성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하는 등 여성과 여아가 기후정의를 위한 행위주체자로 활약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압둘 가푸르 모하메드(Abdul Ghafoor Mohammed) 몰디브 외무장관은 기후변화가 몰디브 여성 농업인들의 생업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며, 기후정의를 위한 전세계 및 전 지역사회가 참여가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르노-바소(Renaud-Basso)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총재는 성평등 제고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향후 4년 동안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6년 이후 73억 유로를 성평등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여성이 친환경 산업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두 번째 행동분야는 기후변화와 취약성에 대한 성별분리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젠더팀의 라켈 라구나스(Raquel Lagunas) 이사는 UNDP와 OECD가 함께 협력하여 젠더와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린 젠더 정책 트랙커(Green Gender Policy Tracker)'를 출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서 기후를 위한 여아들(Girls for Climate)의 공동대표인 조니타 바비예(Joanita Babirye)는 여성이 기후 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6년까지 1,000명의 여성이 친환경 일자리(green job)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그린 그라운드 펀드(Global Green Ground Fund)의 공동의장인 리건 프리츠커(Regan Pritzker)는 여성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밝히며 기후변화에 대한 페미니스트 행동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세 번째 행동분야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대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녹색희망재단(Green Hope Foundation)의 케카산 바수(Kehkashan Basu)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를 위한 리더십 강화를 위해 여성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여성에 대한 역량강화 및 여성의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평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행동(Diverse Voices and Action (DIVA) for Equality)의 놀린 나불리이부(Noelene Nabulivou) 공동설립자는 피지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작은 섬들의 기후변화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 단체는 군소도서국 여성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군소도서국가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 청년주도의 기후정의 행동연합 그룹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행동분야는 여성과 여아의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제개발법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의 얀 비글(Jan Beagle) 사무총장은 효율적인 법 제정 및 집행은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여성 회복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여성과 여아의 기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강화, 의사결정, 법적 역량강화를 통해 토지 및 자원 접근성 향상, 성인지적인 기후 관련 법과 정책 제정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말라라 펀드(Malala Fund)의 나오미 냐메야(Naomi Nyamweya)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성의 교육권이 저해되고 있음을 밝히며, 성평등하고 친환경적인 학습(gender equal and green lear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말라라 펀드는 여아의 성·재생산 교육접근성 제고, 여학생의 과학 기술분야 교육 증진, 학생주도 활동 등에 집중하며 여아의 교육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약 2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처럼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연합 세션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후변화와 성평등 이슈의 연계성을 논의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강령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기후변화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으며,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과 직결된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 세션의 마지막 대담에서 메리 로빈슨 좌장과 UN Women 아니타 바티아(Anita Bhatia) 부총재가 강조한 바와 같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등의 이슈를 분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두 통합적이고 상호연계적인 이슈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세션에서 공유된

행동강령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기후자금, 성별분리데이터, 여성 리더십, 회복 탄력성 등의 이슈를 아우르며 포괄적인 접근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세션에서 언급된 행동강령을 실천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가 요구된다.

사.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약 (Compact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Humanitarian Action)⁴⁾

세대평등포럼에서는 5개 행동연합과는 별도로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약”을 발표했다. 각 분야의 성평등을 위해 세부적 조치를 약속한 개별 행동연합 세션과는 달리, 이 세션에서는 특별히 분쟁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의 보호와 참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참가자들은 여성이 분쟁 후 평화정착과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주체이자 리더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협약을 통해 여성의 평화프로세스 참여를 강화하고, 리더십을 증진하는 한편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책임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세션의 사회를 맡은 나이지리아 출신 페미니스트 언론 기업가 예미시 아킨보볼라(Yemisi Akinbobola)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 채택 20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족과 정치적 의지 결여로 인해 결의안이 실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유엔여성기구 펄질 므람보 응쿠카(Phumzile Mlambo-Ngcuka) 상임이사는 이 협약은 여성평화안보(WPS)와 관련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진척이 더디었던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와 북경행동강령 세부조항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함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이 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을 위한 재원을 별도 마련하며, 젠더기반폭력 예방조치에 주안점을 둔다고 강조하였다.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프라밀라 패튼(Pramila Patten)은, 분쟁지역의 성 불평등은 젠더기반 폭력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자 보이지 않는 동인(invisible driver)으로 작용해 왔으며, 젠더기반폭력이 무기로 악용되어 온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4) Compact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Humanitarian Action,
<https://www.youtube.com/watch?v=LLLS-Xm9SGE&list=PLY61F1S2vLKaBox8rMBxnRMSZeDCyGxQh&index=7> (접속일 2022. 9. 15.)

이어서 각국 정부, 지역기구, 시민사회, 국제기구, 청년단체 등은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먼저 각국 정부의 경우, 노르웨이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의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현재 예산의 4배를 투자하여 여성의 평화프로세스 참여 증진에 앞장서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 국제개발처장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는 미국이 2017년 여성평화안보(WPS) 전략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분쟁지역 여성의 역량강화와 대표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4억 달러를 투자해 이 전략을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여성과 여아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여성의 평화프로세스에서의 리더십 양성을 위해 특별히 9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일랜드 사이먼 컨비(Simon Conway) 외무부 장관은 젠더기반폭력(GBV) 근절, 유엔여성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페미니스트 기구 지원등을 약속하였으며, 에스토니아의 에바 마리아 리메(Eva-Maria Limet) 외무부 장관 또한 유엔여성기구의 인도적 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에스토니아 국가행동계획(N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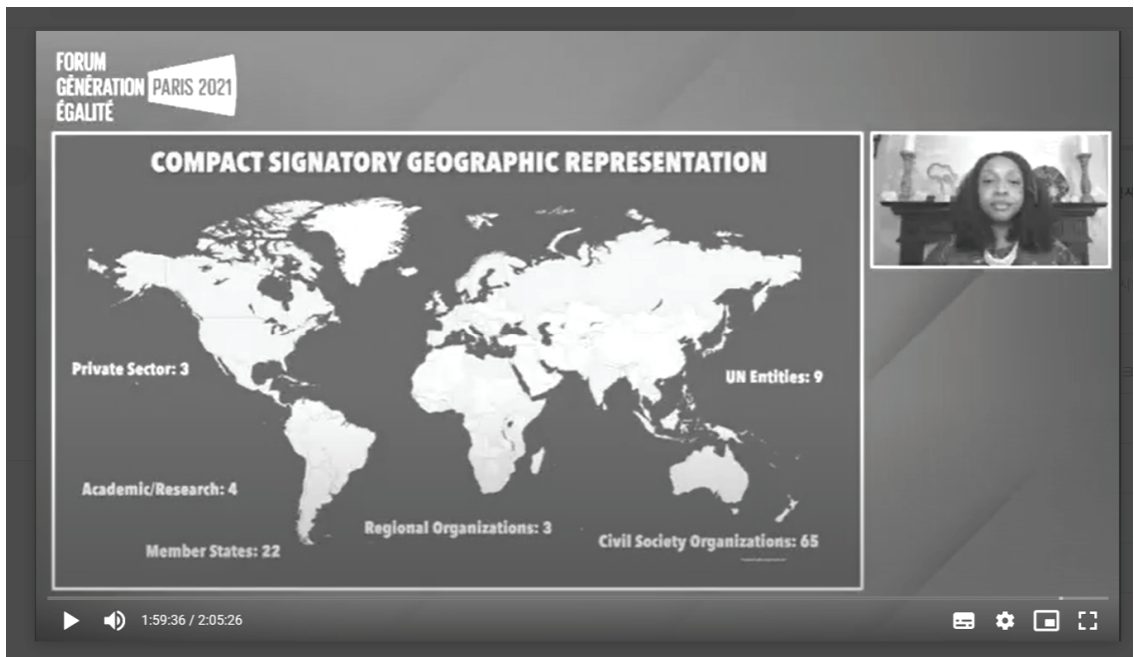
지역기구의 경우, 아프리카연합 여성평화안보 특사 비네타 디오프(Bineta Diop)는 현재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중 1/2의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NAP)을 시행 중이며, 5년 이내에 모든 회원국이 NAP를 수립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아프리카 포럼(African Forum on WPS) 등 다양한 플랫폼과 관련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번 협정의 역내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 헬가 마리아 슈미트(Helga Maria Schmid)는 OSCE가 그간 분쟁방지와 해결에서 성평등과 성주류화를 적용해왔고 앞으로도 여성의 평등하고 의미있는 참여와 젠더관련 어젠다를 평화프로세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차세대 여성들을 평화구축자(peace builder)로 훈련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며, 분야 내 여성 리더십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쟁 후 재건지역에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 평등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이고 니디예(Diogo Ndiaye)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여성 평화와 안보 네트워크 지역대표(Regional President of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Women's Peace and Security Network)는 역내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안보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아프리카 버전의 여성평화안보 마셜 플랜 마련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제기구 측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평화활동, 유엔여성기구 등이 참여했

다. 유엔평화활동 사무차장(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Peace Operations) 장 피에르 라크루와(Jean-Pierre Lacroix)는 여성리더십 강화와 여성평화안보 임무(WPS Mandate)를 2배로 증대하고, 평화유지활동(PKO)에서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협상불가한” 규범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폐회사로 참여한 파이비 카니스토(Paivi Kannisto) 유엔여성기구 평화와 안보 및 인도적 조치 수석(Chief, Peace and Security and Humanitarian Actions, UN Women)은 유엔의 여성전문기구로서 협정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 협력체계를 통해 지원하고, 협정의 이행목표 달성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의 분쟁 혹은 분쟁 후 국가에서 활동하는 여성시민단체가 참가하였는데, 이들 또한 여성의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참여 증진과 포용적 인도적활동을 통한 협약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정 세션은 평화프로세스에서 여성 어젠다 수용,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 증진, 자원마련을 통한 성평등한 인도적 활동과 지원을 강조했다.



[그림 2] 여성평화안보(WPS)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정부 및 단체 분포도
(사기업 3, 학계 4, 유엔회원국 정부 22, 지역기구 3, 유엔기구 9, 시민단체 65)

다. 이번 세션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 노르웨이,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하여 여러 공여국 정부에서 분쟁지역에서의 젠더기반폭력(GBV) 근절, 여성과 여아 보호 강화,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의 지역안보기구와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UAE)와 시에라리온 정부에서도 함께 역내 협력을 통해 여성 평화안보와 인도적 조치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4. 폐회식⁵⁾

세대평등포럼의 폐회식은 유엔여성기구 시민사회분야 국장(Director of Civil Society Section) 로파 배너지(Lopa Banerjee)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배너지 국장은 이번 세대평등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세대를 넘나드는 장이었으며, 특히 정부기구와 민간, 유엔기구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400억 달러 자금마련을 이루고 성평등 이행을 위한 공동의 대응과 상호책임을 약속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말했다.

폐회식은 유엔여성기구, 아프리카 연합, 멕시코와 프랑스 주최 측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 대담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엔여성기구 상임이사 펄질 블람보 옹쿠카는 400억 달러의 기금이 정부 210억 달러, 민간 150억 달러, 자선가 45억 달러, 유엔기구 13억 달러로 등 십시일반으로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약속에 참여해 준 시민사회와 청년층의 공헌과 열정도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아프리카 연합 굿윌 자문역(African Union Goodwill Advisor)인 나야라자이 굼본츠반다(Nyaradzayi Gumbonzvanda)는 이번 세대평등포럼이 북경행동강령에 활기를 불어넣고, 차세대 여성이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리더십 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시골지역 여성의 기본적 교육권과 접근성을 해결하여야만 가부장적 규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최 측인 프랑스의 성평 및 다양성과 균등한 기회 장관(Minister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France)인 엘리자베스 모레노(Élisabeth Moreno)는 북경행동강령 이후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번 팬데믹 경험은 성평등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이번 세대평등포럼에서 여성과 국가, 민간협력을 통해 한층 강해진 여성을 볼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멕시코 대통령 직속 국가여성위원회(President National Institute of Women, Government of Mexico)

5) Generation Equality Paris: Closing Ceremony, <https://www.youtube.com/watch?v=Owy2TEUlnk> (접속일 2022. 9. 15.)

네이딘 가스만(Nadine Gasman)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차세대 페미니스트 바람이 일고 있었으며, 필요한 재원과 약속선언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세대평등포럼은 여러 차례 세션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그간의 국제사회의 합의와 달리 정부와 국제기구만의 논의가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 청년층을 논의에 참여시켜 다양한 다자이해관계자를 협정과 행동계획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폐회식에서는 약속 이행을 위한 기금마련 결과, 이행을 위한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차세대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폐회식에서 별도로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 활동 협약과 기술혁신 행동연합 약속에 참여한 이들을 초청하여 이 두 분야를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향후 이 두 행동연합의 활동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발판으로 그간 이행이 더디었던 북경행동강령과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이행도 시너지를 발휘하여 보다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